

식이 29%,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이 15% 순으로 나타났다.

2) 혼례

혼례시 하객 접대음식 마련 방법을 보면 절대하지 않고 답례품으로 대신한다가 1.3%, 집에서 마련한 음식으로 집에서 대접한다가 6.5%, 일부는 집에서 일부는 음식점에서 맡겨 음식점에서 대접한다가 68.5%, 집에서 마련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대접한다가 17.8%로 나타나 집에서 만든 음식과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으로 음식점에서 대접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

3) 첫 돌

돌에 관한 실태는 첫자녀의 돌날에는 85%가 돌상을 차렸고 약 90%의 응답자가 손님초대를 하였다고 답하였다. 돌떡을 장만한 방법을 보면 응답자의 50%가 집에서 만들었고 일부는 샀다고 답했으며, 32%의 응답자는 모두 샀고, 16%는 모두 집에서 만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돌잔치에 오신 손님수는 2-300명으로 평균 38명 정도였고 손님초대 기간은 1-12일로 평균 1.9일로 나타났다. 돌잔치에 든 비용은 4-350만원으로 평균 35만원이었다.

4) 회갑

회갑에 관한 결과는 75%가 회갑잔치를 했으며, 12%는 회갑잔치와 함께 여행을 했고, 7%는 여행만을 했다. 회갑잔치의 장소는 자택이 가장 많았으며(63%), 음식점이나 호텔(23%), 자녀의 집(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님수는 10-5--명으로 평균 125명이었다.

잔치비용은 20-400만원으로 평균 110만원 정도였다. 회갑잔치의 음식은 응답자의 45%가 모두 집에서 마련하였으며, 일부는 집에서 마련하고 일부는 사거나(19%), 일부를 음식점에서 마련하고 일부는 가정에서 준비(27%)한 경우를 합치면 90%이상의 가정에서 회갑음식의 일부나 전부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생일 초대

생일시는 집에서 대부분이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른 생일에는 떡준비를 하고 자녀 생일에는 케이크를 주로 준비하면서 각종 떡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일시 초대 손님수는 6-10명이 41.4%, 5명이내가 19.1%, 11-15명이 17.7%로 나타났고 16명 이상인 경우도 21.8%나 되었다. 생일 초대시 예산은 1인당 5천원이 39.7%, 1만원이 36.5%로 나타나 5천-1만원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실태 조사에서 보면 전통적인 우리 가정행사시 음식종류, 음식준비방법 및 축하장소가 변해가고 있어 전통적인 가정행사가 현대에 맞는 양식으로 탈바꿈해가고 있다. 우리들은 전통적인 방법을 유지하면서 낭비가 없는 가정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과학적인 식생활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정·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음식물비의 문제

조영희(서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I. 서 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중의 하나가 먹고자하는 욕구이다. 인류에게 있어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오랜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과제였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처음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굶주림에서 해방시켰다.

우리의 경우도 경제발전과 함께 "보리고개"란 말이 사라진지 오래다. 아니 오히려 이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증에 걸린 사람이 증가하고 있고 소화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문제인 것은 음식을 버리고 있다는 것이며 그로 인한 쓰레기의 처리

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한 개인의 한 가족의 음식의 낭비도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쓰레기의 문제를 남고 있고, 그로 인한 수질, 토양,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은 각개인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식생활에 있어서의 음식물의 낭비는 가계 및 국가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가계를 꾸려나가도 정부의 입장에서 재고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 다.

II. 음식물비와 쓰레기처리 비용에 관한 문제

본 장에서는 가계 및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음식물비의 문제와 관련하여 식품의 수입문제,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음식물비의 문제-버려지는 음식 문제, 외식비의 문제, 음식쓰레기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농경사회로서 쌀을 주식으로 하여 왔으나 최근에 와서 이러한 식사구조가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하는 식량 자원의 하나로 국내 양곡 생산량의 84%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가소득의 49.4%를 차지하는 쌀은 생산기반의 확충 및 영농기술의 발달 등으로 매우 안정적인 반면 쌀소비가 점차 감소한데 따라 재고미가 누중되어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 밀과 밀가루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그 양이 증가함에 따라 외화의 유출과 함께 식품의 해외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밝혀진 바로는 영양학적 측면에서 쌀은 지방함량이 적고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하며 나트륨 및 콜레스테롤이 없는 양질의 식품임을 볼 때 국민들에 대한 영양지식의 보급의 부재가 중요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밀과 밀가루 외에 육류 및 음료, 기호식품의 수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75년과 비교할 때 91년의 경우 쌀소비가 30-70% 감소한데 반해 육류 섭취

량이 3-5세 증가했고 콜라·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의 소비가 5배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외화유출은 결과적으로 가정·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됨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의 문제는 단지 외화유출이라는 비용의 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수입식품의 악플처리 결과 우리는 신체적인 안전에 위협을 받았음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음식물비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면, 소득의 증가와 비교할 때 비록 감소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음식물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다.

그러면 이러한 수치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 보자.

우선 버려지는 음식에서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쓰레기로 버려지는 식품의 양이 자그마치 33.4%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80년에 17.4%, 85년의 27.9%, 그리고 '88년의 31.2%로 볼때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버려지는 식량은 '90년의 경우 1년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8조여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음식의 낭비에는 음식점에서 먹다 남아 버려지는 것, 가정행사 즉 잔치를 치르고 버려지는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비해 외식비가 증가한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외식산업은 새로운 식생활 산업형태로 최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1975년에는 1인당 559원으로 2.0% 차지했던 것이 1990년에는 44,800원으로 무려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1년에는 1인당 60,200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식비의 급증은 즐겁고 값싸게 음식을 증기는 것에서 떠나 어느새 자기과시를 위한 낭비적인 식생활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1991년 대한생명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인 품위유지비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품위유지비는 월급의 13.6%를 차지하고 있어 응답자의 67.8%가 가정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으며, 품위유지비의 53.4%가 식사와 술자리 비용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응답자들은 1달에 결혼축의금이 4만원 이상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접대비 지출에서도 과소비 경향이 있음

을 볼 수 있다.

한편 식생활과 관련된 우리의 영양상태를 보면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9년의 식품수급표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영양공급량은 2,832Kcal 88년보다 18Kcal 늘어났는데, 한국인구보건원이 발표한 에너지 권장량과 비교해 보면 열량 섭취량도 과잉인 셈이다.

이와같이 음식물비의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음식문화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는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문제이다. 1990년 현재 전체 생활쓰레기의 1/4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의 증가는 식량자원의 낭비는 물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또한 막대하게 소요된다. '85년부터 '89년까지 쓰레기 발생량은 년평균 6.3%씩 증가한 반면 동기간동안 쓰레기 처리 관련 예산을 평균 14.1%씩 증가하여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 2배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처리단가는 톤당 5,026원에서 6,688원으로 33.1% 증가하였다. 이러한 처리비용의 증가는 종국에는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쓰레기의 처리방법에 있어서도 문제를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처리방법에도 매립, 소각, 재활용의 방법을 들 수 있는데 '90년 말 현재 쓰레기의 93.0%를 매립하고 있으며 1.8%는 소각 4.6%는 재활용함으로써 거의 전적으로 매립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가상승과 지역주민의 반발로 새로운 매립지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이것은 앞으로의 쓰레기 처리에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문제를 낳고 있다. 이것은 자원의 낭비와 함께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낳고 있다. 우리가 흔히 일회용품의 일간 사용량과 그에 따른 생산비는 실로 엄청나다. 급속도로 변하는 소비 생활의 변화에 따라 급성장한 산업으로 대표적인 것은 1회용 용기 제조업이다. 은박지와 폴리에틸렌 서지(bsp)를 원료로 하는 1회용 용기시장은 해마다 두배이상 성장을 해서 '90년 4백억원이었다. 가정에서도 1회용 용기가 접하는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잔치를 치를 때 1회용 용기가 많이 쓰이고 있다. 또한 상품의 포장에 쓰이는 1회용 비닐 봉지의 쓰임새도 만만치 않다. 한국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연간 1,200억 원어치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같은 종류의 1회용품들은 경제적인 생산비와 함께 썩지 않아서 오는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우리의 음식문화가 변화되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인다.

III. 결 언

이상에서 살펴본 음식물의 낭비와 그에 따라 수반되는 쓰레기의 문제를 가계·국가재정에 중요한 문제가 됨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불가피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문제이고 극복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이다. 각 개별가계의 차원에서 주부는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최근의 자원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치밀하게 예산을 세우고 실천하며, 음식의 양도 정확하게 측정해서 조리하는 것도 그 한가지 방법인 것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상차림의 방식으로 모든 식구가 한꺼번에 한 그릇의 음식을 먹기보다는 개인마다 필요한 적정량을 덜어서 먹게함으로써 남은 음식도 버리지 않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냉장고 보급에 따라 냉장고를 지나치게 과신하는 나머지 저장한 식품이나 음식을 점검하지 않은채 오래 두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부들은 정기적인 냉장고 점검을 통해 음식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판매자의 차원에서도 가족규모가 핵가족화되면서 음식소비 단위가 줄어들고 있으나 판매되고 있는 단위는 아직 그에 맞춰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다. 예를들면 단순히, 한뿔음 두뿔음 보다는 1인분, 2인분의 단위로 묶는다면 실제소비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매가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한 영양교육 소비자 교육을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월간 식생활 1991.10
 월간 식생활 1991.11
 월간 식생활 1991.12
 월간 식생활 1991.1
 이기춘, 가정경제학, 교문사 1991
 통계청, 한국경제지표, 1991.1.4
 한국무역협회, 1990 무역통계
 한국소비자보호원, 쓰레기 감량을 위한 재활용 방안 연구, 1991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생활지표, 1991

식생활에 대한 국민 의식의 문제

조숙자(서원대학교 가정교육과교수)

1. 머릿말

먹는다는 것은 인간의 욕구 중에서도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될 때 인간은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잘 살게 되자마자 잘먹는 것으로 치달아 가정의 여러가지 행사시에 음식문화에 문제를 낳고 또한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가정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음식물비에 당연히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 밖에 과소비·사치·호화·무질서·무분별 등 우리 주변에 문제는 수없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가 서로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 식생활에 대한 국민 의식의 문제에 있어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지, 개인과 가정 또한 사회의 식생활 습관상의 문제점 그 영향

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과 그 영향으로 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인간으로서 참다운 삶을 회복하여 개인과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건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문제점

1) 소득의 향상으로 과다하게 먹고 마시게 된 결과 영양 과잉으로 인한 성인병이 증가되어 개인, 가정, 사회문제 및 국민의 건강의 침해

2) 편리, 안일 위주의 삶의 방식에 따른 일회용 식기 사용의 증가로 쓰레기 양이 증가하고 다른 오염 공해 문제를 야기

3) 과잉소비, 과시소비에 따라 버리는 음식이 많아 전체 쓰레기 양의 25%나 되며, 개인, 사회, 국가경제에 직접 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쓰레기양의 증가, 수거, 처리문제, 환경오염공해 등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 야기

4)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은 5,569불(1990년)이며 일본은 23,463불(1989년)로 일본의 20% 정도인데 음식 쓰레기의 발생율은 25.4%로 소득수준 세계 40위의 우리나라 3위 일본 6위 미국 20위 영국 등 선진국형을 따라가고 있으며 음식잔유물이 쓰레기에 차지하는 비율은 41.6%로 세계 최고이다.

5)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수분 함량이 높아 부패하기 쉬우므로 하절기엔 악취, 곤충의 발생으로 수거의 문제점 및 겨울철에 얼어붙어 수거하기가 힘들며 염분을 함유하고 있어 철제쓰레기 수거함의 부식의 원인이 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3D(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를 기피하는 현실에서 구인난과 고임금도 큰 문제로 대두됨.

6)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결식 인구가 많으며 세계적으로도 지구상의 인류의 영양상태는 현재 세계 인구 52억 중 12억은 절대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

7) 세계 각국의 국민의 교육 수준을 비교해 보면 국민의 학력 구성비는 고등 교육에 있어서는 11.0%로 미국의 32.2%에 뒤지나 중등교육 이상은 57.5%로 일본의 54%보다 오히려 더 높은 비율이며 최근(1988)에 와